

도입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새로운 생명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 마음과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 Walking on the King's Highway

1.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2.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3.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맘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4.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둔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후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1. I'm rejoicing night and day, As I walk the pilgrim way, For the hand of God in all my life I see,
And the reason of my bliss, Yes, the secret all is this: That the Comforter abides with me.
 2. Once my heart was full of sin, Once I had no peace within, Till I heard how Jesus died upon the tree;
Then I fell down at His feet, And there came a peace so sweet, Now the comforter abides with me.
 3. He is with me everywhere, And He knows my every care, I'll as happy as a bird and just as free;
For the Spirit has control, Jesus satisfies my soul, That the Comforter abides with me.
 4. There's no thirsting for the things Of the world they've taken wings: Long ago I gave them up, and instantly
All my night was turned to day, All my burdens rolled away, Now the Comforter abides with me.
- Chorus) He abides, He abides, Hallelujah, He abides with me!
I'm rejoicing night and day, As I walk the narrow way, For the comforter abides with me.

본문 요한복음 3:3-5

-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 4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John 3:3-5

3 Jesus answered and said to him, "Most assuredly, I say to you, dunless one is born 1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4 Nicodemus said to Him, "How can a man be born when he is old? Can he enter a second time into his mother's womb and be born?" 5 Jesus answered, "Most assuredly, I say to you, eunless on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he cannot enter the kingdom of God.

설교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3) 거듭남은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이 되거나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영적인 생명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출생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이루어 낼 수 없었던 것처럼, 영적인 출생 역시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고 그 방향을 조종할 수도 없지만, 바람이 지나간 흔적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실 때, 그 변화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죄를 사랑하던 마음이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갈망하게 됩니다. 거듭남은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본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던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뱀을 사귀는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에게 물려 죽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뱀을 바라볼 때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도 이와 같이 높이 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4-15)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필수적인 구원 사역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영적으로 죽어 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을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인간의 종교적인 결심이나 도덕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거듭난 사람도 여전히 죄와 싸우며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위해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단순히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단순히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으로 시작되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입니다.

Nicodemus was a Pharisee and a Jewish leader who knew God's Word well and faithfully observed the Law. Yet Jesus made a remarkable statement to him: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John 3:3). Being born again is not simply about becoming more religious or improving our behavior. It means receiving an entirely new spiritual life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e cannot produce spiritual life through our own efforts. Just as we did not choose or cause our physical birth, we cannot bring about our own spiritual birth. Being born again is entirely the supernatural work of the Holy Spirit within us. Jesus compare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o the wind. We cannot see the wind or control where it blows, but we can clearly recognize its effects. In the same way, when the Holy Spirit gives us new life, the evidence of His work begins to appear in our lives. A heart that once loved sin begins to hate it. Someone who was once indifferent toward God begins to hunger for His Word, love Jesus Christ, and desire to live a life that pleases Him. Being born again is not merely a change in behavior; it is God's transforming work that renews our hearts and our very nature. But how can we, who were spiritually dead because of sin, receive this new life? Jesus refers to the account of the bronze serpent in Numbers 21. When the Israelites rebelled against God in the wilderness, they were bitten by venomous serpents and were dying. They could not save themselves. Their only hope was to look at the bronze serpent that God had provided. Jesus then explains that He, too, must be lifted up: "And as Moses lifted up the serpent in the wilderness, so must the Son of Man be lifted up,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may have eternal life" (John 3:14-15). Jesus' crucifixion was an essential part of God's saving work for humanity. We cannot overcome sin and death through our own efforts or good works. Salvation comes only through Jesus Christ, who was crucified for us. The Holy Spirit gives new life to those who are spiritually dead and opens our hearts to look to the cross of Jesus Christ and believe in Him. Therefore, being born again is not the result of human religious determination or moral achievement. It is the amazing grace of God given to sinners. Those who are born again still struggle with sin and sometimes fall. However, a genuine transformation has begun within them. Where they once lived for themselves, they now desire to love God and live for His glory. Today, we must ask ourselves: Am I simply living a Christian lifestyle, or have I truly been born again through the Holy Spirit, living with a genuine love for Jesus Christ? Jesus did not come simply to make us better people. He came to give new life to those who were spiritually dead. Being born again is not a transformation that begins with our own efforts, but a work of new life that begins with God's grace and transforms every part of our lives.

- 바람의 방향은 알 수 없어도 흔적을 볼 수 있듯, 예수님을 믿은 후 내 생각, 가치관, 혹은 성품에 일어난 가장 분명한 변화는 무엇인가요?
Just as we see the effects of the wind without seeing the wind itself, what is the clearest change in your thoughts, values, or character since believing in Jesus?
- 단순히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번 주 우리 가족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Beyond simply trying to be "good people," what is one practical step our family can take this week to truly love and bring joy to God?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eavenly Father, we praise and thank You for Your immense love that rescued us from sin and death to give us new life born of the Spirit. Enable our family to look to the cross daily, living not for ourselves but for Your joy and glory as a true family of faith.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